

■ 주요 뉴스: 미국 주요 지역 연은 총재 금리 인상 속도조절 필요성 제기

- EU 집행위원장, 에너지 위기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탈중국 필요
- 미국 금년 예산적자,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 일본은행 총재,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금융완화 필요성 강조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통화긴축 완화 기대감 등이 영향

주가 상승[+2.4%], 달러화 약세[-0.8%],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금리 인상 속도조절 기대감에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영국의 정치혼란 및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금리 인상 완화 전망에 약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8%, 1.7% 반등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가 상승 및 통화긴축 우려 완화에 하락
독일은 유로존 생산자물가 상승 영향 등으로 2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428.8원, -10.7원) 0.7% 하락, 한국 CDS 하락

		10/21일	10/20일	전일대비			10/21일	10/2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752.8	3,665.8	2.37%	국채 금리 10y	미국	4.22%	4.23%	-1bp
	유럽	396.29	398.77	-0.62%		독일	2.42%	2.40%	2bp
	중국	3,038.9	3,035.1	0.13%		영국	4.05%	3.91%	14bp
	일본	26,891	27,007	-0.43%	CDS 5y	한국	60bp	62bp	-2bp
	한국	2,213.1	2,218.1	-0.22%		중국	120bp	115bp	5bp
환율	달러지수	112.01	112.88	-0.77%	위험 지표	EMBI+	-	472	-
	유로화	0.9862	0.9786	0.78%		VIX	29.69	29.98	-0.97%
	엔화	147.65	150.15	1.67%		WTI유	85.05	85.98	-1.08%
	위안화	7.2306	7.2145	-0.22%	원자재	구리	347.5	341.1	1.88%
	원화	1,439.8	1,433.3	-0.45%		금	1,657.7	1,628.0	1.8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주요 지역 연은 총재, 금리 인상 속도조절 필요성 제기

-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메리 데일리 총재는 11월 FOMC에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하지만 영원히 75bp 인상을 지속할 수는 없다면서, 과도한 통화 긴축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폭의 단계적 축소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
- 시카고 연은의 찰스 에반스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향후 기준 금리를 4.5%보다 다소 높은 수준까지 올려야 하겠으나, 금리 오버슈팅의 비용이 어느 수준인지 불확실한 만큼 그 후에는 금리 인상 효과와 경제지표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
- 뉴욕 연은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에서 노동자 확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 간호, 제조 등 분야의 신입직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설명은 자제
- 손버그투자운용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정점에 달했다고 분석. 에드워드존스의 투자 전략가 역시 연준의 금리 속도조절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한 만큼 향후 상승압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EU 집행위원장, 에너지 위기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탈중국 필요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과잉 의존을 줄여야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에 대한 위험을 낮춰야 한다면서 반도체법과 원자재법 추진이 전략적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 또한 중국의 체제는 서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경쟁의 본질을 인지하고 있다고 부연

■ 미국 금년 예산적자,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 2022 회계연도 미국 정부 적자는 코로나19 구제금융 지출 감소와 경기 호조로 인한 정부수입 증가 등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인 1조3,750억 달러로 집계
-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 지원액이 4,300억 달러에 달했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감소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강조

■ 일본은행 총재,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금융완화 필요성 강조

-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연말까지 에너지, 식품, 내구재 등 가격이 오르겠으나 내년부터는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 또한 임금 상승을 동반하는 형태로 물가 안정을 유지하면서 금융완화도 지속하겠다고 언급

■ 미국, 이란의 반정부 시위 지원을 위해 머스크와 스타링크 서비스 제공 방안 논의

-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이 반정부 시위를 억제하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시위대 지원을 위해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스타링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인터넷 통제 우회를 논의. 다만 일부 관료들은 머스크가 예측 불가능한 인물인데다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

■ 마러 국방장관 통화, 핵 억제 위한 소통 유지

- 미국 국방부는 오스틴 국방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소통 채널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전세계적으로는 핵 위험에 대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 중국, 자국 펀드매니저에 공산당 당대회 기간 주식 투매 금지령

- 중국 당국은 공산당 당대회 기간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 펀드매니저 등에 대규모 주식 매각을 자제하라고 권고. 이에 전문가들은 시장 가격에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

■ 무디스, 정치 혼란 우려에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 무디스는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의 사임 등을 언급하면서 성장 전망이 악화 및 인플레이션 가중 상황에서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까지 높아졌다고 지적. 또한 향후 영국의 부채 상환능력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신용등급을 Aa3로 유지하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0/21 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9월 생산자물가(전년동기대비): 21.3%, 8월(21.0%)
- 일본 9월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3.0%, 8월(3.0%), 예상치(2.9%)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31, E-mail jgbaek@kcif.or.kr